

HOME > 로컬+ > 대구경북

농어촌공사 포항·울릉지사, 저탄소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협약식

배달형 기자 | 승인 2022.04.15 13:00 | 댓글 0



왼쪽에서 세 번째 농어촌공사 포항·울릉지사 지사장, 왼쪽에서 네 번째 국철전업농협협의회 회장(사진=농어촌공사 포항·울릉지사)

한국농어촌공사 포항·울릉지사는 지난 13일 저탄소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협약식을 체결하고 공동 참여한 결과 흥해지구를 시범사업지구로 확정 통보받았다고 15일 밝혔다.



왼쪽에서 세 번째 농어촌공사 포항·울릉지사 지사장, 왼쪽에서 네 번째 국철전업농협협의회 회장(사진=농어촌공사 포항·울릉지사)

한국농어촌공사 포항·울릉지사는 지난 13일 저탄소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협약식을 체결하고 공동 참여한 결과 흥해지구를 시범사업지구로 확정 통보받았다고 15일 밝혔다.

본 사업은 벼 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(메탄) 감축을 위한 감축계수 개발과 논물관리기술 보급으로 지역별 탄소 감축 우수 모델 개발하는 사업으로 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농과대학, 국공립연구기관 및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진행된다.

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는 포항시 흥해읍이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용연저수지의 수혜구역인 흥해 지구에 탄소 감축 우수 모델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용수지원 및 간단관개에 의한 물관리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.

또한 경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과 한국철전업농협협의회와 협업체 논물관리기술(간단관개, 알개 걸러대기) 보급으로 벼 농사 탄소감축 및 벼 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지속적인 ESG(Environment Social Governance)경영을 위해 농업분야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.

[신아일보] 포항/배달형 기자
bdh2523@hanmail.net

저작권자 ©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부장 지킴			
담당	필공	필공	결재
이현정	정민		월 일